

지방자치·종합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국제화 교육 특구 조성 따뜻한 도시로”

“남구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모든 주민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최영호 광주시 남구청장은 “올해 구정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화문화교육특구 조성,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최 청장은 참된 주민자치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행복한 복지공



서 “여성권의 증진을 목표로 양성 평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화 문화·교육 특구 조성과 과학영재고등학교 유치, 푸른길 도서관 건립을 통해 고졸격의 교육과 문화가 혼합된 창조도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청장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들 방안으로 주민편의성과 역사·문화자원을 고려한 도시재개발 및 건축과 함께 그린스타트 네

‘청렴남구’ 정착 노력

동체 조성,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창조도시 건설, 살기 좋은 녹색 도시 조성, 빈틈 없는 청사 이전 사업 추진 등 6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최 청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해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광장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내 갈등과 현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청장은 “부끄럽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남구의 청렴도가 다른 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감사관제 등을 도입해 올해는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내년에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표명했다.

최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백운관광 활성화를 이뤄내고, 송암산단에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유치하겠다”며 “김치산업, 장류산업, 떡산업과 같은 전통식품산업을 남구의 주력 성장산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분야 구인·구직 박람회 개최를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복지공동체’ 최우선

트위크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최 청장은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환경을 만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남구 청사 이전 건립사업에 대해 최 청장은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통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신 청사 입주 전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를 연 2회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2월 광주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열린 고싸움놀이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연 2회 검토

강시장 ‘시민대화’서 밝혀

중요문화재 제33호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를 연 2회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고싸움 놀이가 매년 정월대보름에만 열리면서 추운 날씨 탓에 시민들이 관람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과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고싸움놀

이보존회측의 축제지원 요구에 대해, 고싸움 놀이를 정월대보름과 한가위 2차례 개최하고 올해 추가되는 유등축제에 사용되는 유등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제작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고싸움놀이가 현재 정월대보름에만 한차례 열려 관람하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정월대보름에 승부를 내지 말고 추석에 결승전을 하면 지금보다 관람객들이 크게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고싸움 놀이 개최 시점에 맞춰 인근 저수지에서 유등 축제를 펼치는 것도 보존회 측이 유등을 직접 제작하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오는 2월17일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고싸움 놀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존회, 지역주민 등이 참가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姜시장, 시민과 대화 만족도 시민>공무원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운영하고 있는 ‘시민과 대화’가 참여 시민과 지역 내 여론주도층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는 9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참여시민 167명등 여론주도층 69명, 담당 공무원 147명 등 383명을 대상으로 ‘시민과 대화’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평균 평점은 75.4점이었다”고 밝혔다. 참여시민과 여론주도층의 만족도는 각각 79.8점, 76.33점이었으나 담당공무원의 만족도는 70.13점으로 참여시민과의 격차가 9점 이상 벌어졌다.

‘시민과 대화’가 중요한 정책인가(중요성)를 묻는 질문에 참여 시민과 여론주도층은 88.47점과 80.30점을, 담당공무원은 66.44점을 찍어 참여시민과 공무원 사이에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시민들은 처리결과와 만족도(67.76점), 여론주도층은 지속추진 가능성(71.88점), 공무원은 의견수렴 만족도(66.39점) 등의 분야에서 최저점을 찍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참여시민들은 예산이나 시기 등의 문제로 처리결과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과도하게 늘어나는 업무량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北 조평통 “남북 당국회담 조속히 열자”

1월~2월중 적십자회담·금강산관광재개 회담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은 8일 남북 당국 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동시에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1월말이나 2월상순 개성에서 열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5)으로 천명한 중대제안을 적극 실현하여 하루빨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며 3개항을 발표했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면서 “당국 회담의 급과

장소, 시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한다”면서 “회담대표단은 종전대로 하든지 새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장소는 개성으로 하고 날짜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 북남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측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들이 곧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

이며 개성공업지구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도 우리측 관계자들을 파견하여 상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우리의 대화제안에는 아무런 조건부도 없으며 그 진의를 의심으로 하고 날짜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향후 북한의 태도를 보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며 즉각 평가절하했던 데 비하면 이날 통일부의 반응은 상당히 신중한 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 다양한 시민 의견수렴 나선다

14일 시민학대회의 개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4일 이사회 및 시민학대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열린 시민학대회의에서는 시민사회계 이사진 보강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원회’로 단체명칭 변경 등 정관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오는 2월 중순에는 광주시의 회 소회의실에서 김대중·노무현 대

통령 기념공원 조성위원회 주관으로 시민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공청회는 기념공원 조성에 대한 경과보고, 주제발표 및 각계의 입장 발표에 이어 시민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가족과 김대중 평화센터, 노무현 재단 관계자의 조언 등을 토대로 시민학대회의와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치원비 동결 학원비도 억제 정부 서민물가 안정 대책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학원비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만들어 1월중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 생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대학등록금이 이어 유치원비도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유치원비 관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Jeonbokjangteo' (전복장터)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like Jeonbokgwi, Jeonbokstimp, and Jeonbokmeowp. Includes contact info: 062-576-8600.

Advertisement for LG Electronics air conditioning systems. Features a diagram showing installation locations like factories, schools, and hospitals. Includes contact info: 062-953-2371.